

중국의 산업구조변화와 한중간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 경 중* · 서 종 현**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The Industry Structure Change in China and The Study Related of Building Korea-China's New Network

Kyung-Jong Kim* · Jong-Hyen Seo**

*Korean Embassy to China · **Dept. of e-Business,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what is the desirable direction of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is based on how the present network is. As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grows, the network between countries will expand. In the past,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is cooperative one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Korean industries was focused on the value-added and mid-advanced technology products, while Chinese was focused on the labor-intensive products. As the China's economy grows for more than thirty years, there is a great change in China's economic policies and environment. China's industry structure is moving from the labor-intensive industry to technology-oriented industry. China's exports to the global market is increasing very fast, and China's domestic market is also growing. The change in Chinese industries' structure bring about severe competition in the global market. The expanding China's domestic market is also good opportunity as the new market in the world. The change in China's industrial structure needs for Korea to establish the 'New Network' between two countries. Korea has to grab the new opportunities in the China's domestic market and find new cooperative network with the products and industries.

Keywords : Industry Structure Change, New Network between Korea and China, Economic Relationship, Strategy Direction

1. 서 론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한지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각이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과거와는 비교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확대되고 있다[1]. 1992년 맺어진 우리나라와의 무역수교를 통해 과거 제한적이고 일부 영역에

서만 이루어지던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 관계는 3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전체 산업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간 교류에 대한 시각이나 네트워크를 재형성함으로써 점차 확대기조에 있는 중국과의 무역구조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신저자: 서종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G302호 e-비즈니스학과

M · P: 010-7737-1793, E-mail: jhseo@kpu.ac.kr

2011년 6월 16일 접수; 2011년 9월 15일 수정본 접수; 2011년 9월 20일 게재확정

과거 중국은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산업, 한국은 고부가가치 중고기술탄 산업 등으로 뚜렷한 분업관계를 형성했다. 그동안 한중간 무역거래는 상호 경쟁적 관계이기보다 철저한 산업간 분업을 통한 협력적 관계였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과 산업도 저부가가치제품의 중국 생산 및 고부가가치제품의 국내생산, 연구개발 기능 등의 국내 수행 등으로 중국과 분업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발전을 도모하였다[2].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분업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도 단순가공무역에서 기계, 전기전자, 소재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도 강조되고 있고, 친환경자동차와 같은 첨단제품의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규모 확대 및 산업구조변화는 중국이 지닐 수 있는 네트워크자원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자원의 변화에 따라 한중간 네트워크도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나 우리 산업이 취할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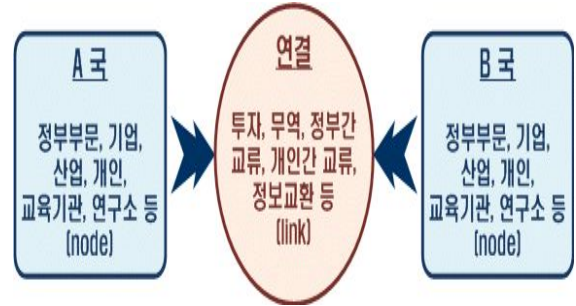
중국과의 분업적 관계에서 형성되었던 협력관계는 점차 고도화된 중국 내부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와의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중복되고 경쟁화될 경쟁 관계를 완화하고 경제적 교류를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교류가 단순한 경쟁 관계가 아닌 네트워크 확대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협업이나 동반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산업구조 및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간 네트워크 변화 및 향후 바람직한 변화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네트워크 및 국가 간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정의를 통해 한중간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한다.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중국의 경제규모, 산업구조변화 및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중간 네트워크의 규모 및 성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설명하며,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 환경에 따라 한중 네트워크의 바람직한 변화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 간 네트워크 형성 모델과 한중 네트워크

2.1 네트워크의 개념과 국가 간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수의 사람이나 조직이 연계되어 있는 복합체를 네트워크로 표현한다[1]. 여기서 네트워크



[그림 1] 국가 간 네트워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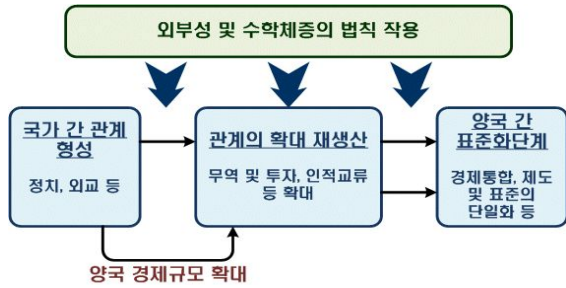
크란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형성은 국가 간에도 이루어지는데, 양국 간의 거래나 투자, 여타 다른 교류들도 관계의 한 일면이다. 네트워크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무언인가를 주고받기 때문에 연결 주체들 간의 변화를 수반한다.

네트워크란 노드(nodes 또는 vertices)와 링크(links 또는 edges)로 이루어진 유무형의 집합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는 통신단말기(node), 인접한 단말기를 연결하는 회선(link)의 집합체이다. 두 개의 노드와 두 노드간의 링크로 형성된 것이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진화하여 커지게 되면 다소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된다. 국가 간 네트워크는 특정 양국 간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각 국가 내에 소속된 다수의 구성원이 노드가 되고, 이들 노드를 연결하는 다수의 링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양국 간 구성원간의 연결이 보다 확대되면 양국 간 네트워크도 확장된다는 것이다.

2.2 네트워크의 형성 및 발전경로

네트워크는 초기에 여러 경로 중 어느 특정 경로를 선택하여 형성되지만, 그러한 경로를 통해 네트워크는 확대, 강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초기에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영구불변의 고정된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간의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이유든 정치 및 외교적 이유든 일단 국가 간 특정 관계가 설정되면 다양한 방향으로 이러한 관계는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네트워크가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는 네트워크가 외부성 및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재는 네트워크사용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가치가 증가하고 네트워크 가치의 증가는 더 많은 네트워크 사용자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수확체증의 원리가 지배한다.



[그림 2] 국가 간 네트워크의 형성 및 발전경로

국가 간의 네트워크에서도 이와 같은 외부성과 수확체증의 원리가 적용된다. 쌍방 간에 투자나 무역이 발생하면, 이에 해당되는 이득뿐만 아니라 정보의 교환이나 다른 부분과의 관계형성 등 외부성이 발생하고, 이러한 외부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의한 수확도 체증하게 된다.

관계의 지리적인 측면도 네트워크 효과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기업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으로서 이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또 다른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효과를 가진다. 국가 간에도 지리적 인접성은 네트워크를 형성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단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인력 교류 및 물류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확대·강화되기 때문이다.

표준화는 네트워크의 원리인 과도한 관성, 수확체증, 경로의존성, 다수 균형 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기술간 경쟁의 결과 표준화 선점을 하게 되면 전체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표준화 선점이 이루어지면 다른 기술로의 대체가 쉽지 않은 관성을 지니게 된다. 국가표준이나 세계표준도 중요하며,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많은 표준도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2.3 네트워크 속성의 변화와 결과 차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네트워크의 연결 강도에 따라 네트워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연결강도에 따라서 느슨한 네트워크와 강한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느슨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는 유효하지만 복잡한 지식의 전달에는 강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한편 느슨한 네트워크에서도 복잡하고 완전한 형태의 정보가 아니더라도 큰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대략적인 정보 등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트워크 형성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지식(정보)의 교환이다. 지식은 명시화된(explicit) 지식뿐만 아니라 묵시적(tacit) 지식, 암묵적(implicit) 지식 등으로 나

뉜다[2]. 명시화된 지식은 기록되어 있거나 코드화되어 있는 지식을 말한다. 묵시적 지식은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묵시적 지식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개인적 시도, 실수, 반영, 교정 등을 통해 창조된다. 암묵적 지식은 집합적인 가치, 규범적 행위, 역할, 관습, 사건에 대한 기대 등 개개의 문화와 가치를 형성하고 스며들어 있는 개개의 전후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환경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상호 암묵적 지식이 공유될 때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상의 네트워크는 암묵적 지식이 공유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비시장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비시장적 상호작용은 금전적인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기업 간 정보 확산, 노동자사이의 인적자본의 흐름, 동료 효과, 사회자본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의 성격에 따라서 네트워크도 변화한다. 기업이나 개인 등도 능력의 크기가 다르고 이에 따라 이들 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성격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소속된 기업들이 성장하면 네트워크자체도 성장하며, 그 성격의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의 성격도 변한다. 국가 간 네트워크도 해당국가의 산업구조, 각종 산업환경, 기업, 개인, 소비수준, 소득 등에 따라 네트워크의 양상도 변화하게 되어 있다. 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네트워크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산업의 네트워크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처럼 지식이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외연, 즉 기업이나 개인 간의 관계를 확대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가지는 노드(기업이나 개인)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측면, 즉 연결의 밀도 및 강도, 신뢰성 등이 강화되는 것이다. 한편, 산업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가 무한정 커진다고 해서 이로 인한 지식 및 자원의 공유효과가 무한정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면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이 쉽지 않게 되며, 그 만큼 네트워크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된다.

국가 간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상 개별 주체 간 연결의 밀도나 강도, 신뢰성과 같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상호 밀접한 관계 및 의사소통을 통해 단순한 거래나 투자관계를 떠나 암묵적 지식을 상호 교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네트워크의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이를 심화시켜 보다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네트워크도 단순한 네트워크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네트워크의 밀도 및 강도도 강화시켜 나가야 네트워크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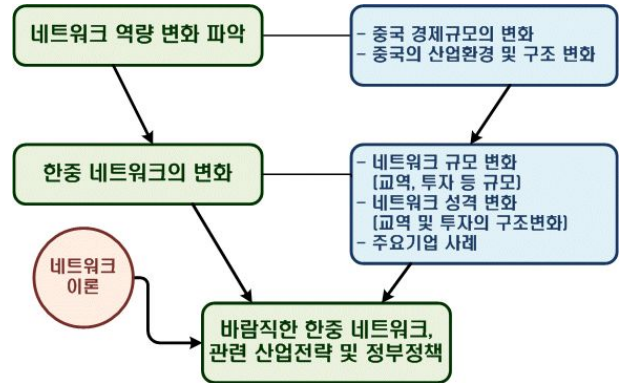
2.3 중국의 구조변화와 한중간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기본모델

한중간 네트워크의 노드는 양국의 정부부문, 기업, 업종단체, 대학 및 연구소, 개인 등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주체들 간의 연결은 무역거래, 상호 투자관계, 유학 및 연수 등 교류, 정보교환, 공동연구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기업의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이 투자 및 무역거래의 대상이기도 하며, 기술공여 및 공동연구개발의 상대도 될 수 있다.

지리적 근접성 및 역사적 관계 등으로 인해 한중 수교 이후 한중간 네트워크는 비교적 빠르게 확대 및 심화되어 왔다. 한국과 중국 모두 여러 대상국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한중간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이러한 여타 네트워크도 우리의 네트워크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관계는 한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중국과 여타 국가와의 네트워크는 한중 네트워크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

한중간 네트워크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96년부터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주장하여왔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실질적인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간 네트워크의 내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한중간의 네트워크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고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중간 네트워크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한 이면에는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이후 빠르게 발전된 데에는 네트워크의 관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먼저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 환경 및 구조 변화를 네트워크 역량변화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에 따라 한중간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를 고찰한다. 한중간 네트워크의 규모변화뿐만 아니라 한중네트워크의 성격변화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 네트워크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가 바람직한지를 진단해보고, 이를 위한 기업의 전략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3] 바람직한 한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체계

3. 중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네트워크 역량 변화

3.1 중국 네트워크 역량 규모의 변화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 역량규모의 측도 중 하나인 GDP는 개혁개방 30년간 거의 10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6.4%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밖에도 국민의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도 32.4배나 증가했다. 재정수입이나 외환보유액은 엄청난 규모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8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부상하였다. 산아제한이 실시되어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있지만 중국은 1978년 9억 6,259만 명에서 2008년 13억 2,802만 명으로 3억 6천만 명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중국은 지난 30년간 네트워크 역량이 큰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역량의 성장으로 인해 무역이나 투자, 인력교류 등과 같은 다른 국가와의 네트워크 연결 규모 자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네트워크의 전체 규모 지표 중 하나인 대외무역은 123배나 증가했다.

외국인투자액도 1983년 6.36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8년 923.95억 달러에 달했고, 세계적으로 투자가 위축되었던 2009년만 하더라도 9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대외투자도 1983년 1,300만 달러에서 2009년 433억 달러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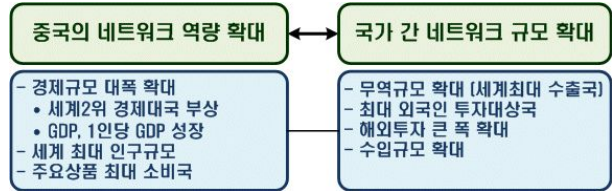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다른 국가들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7%를 달성하였고, 2010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10년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일본을 추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관측(2010년 1월)했다. 중국경제의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 고도성장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표 1> 1978~2008년 30년간 중국 경제의 변화[3]

주요지표	1978년	2008년	비고
GDP	3,645억 위안	30조 670억위안	연평균 9.8%
세계 경제 비중	1.8%	6.4%	세계11위 → 3위
1인당 GDP	381위안	22,698위안	32.4배 증가 (연평균 6.5%)
1인당 GNI	190달러	2,770달러	
인구	96,259만명	132,802만명	
재정수입	1,132억 위안	6조 1,317억위안	985배 증가
외환보유액	1.67억 달러	1조 9,460억달러	11,600배 증가
대외무역	206억 달러	2조 5,617억달러	123배증가 (연평균 17.4%)
-수출	98억 달러	1조 4,286억달러	145배증가, (연평균 18.1%)
-수입	109억 달러	1조 1,331억달러	103배증가 (연평균 16.7%)
도시인구비중	17.9%	45.7%	27.8%p 증가
농촌/도시 수입	134 / 343위안	4,761 / 15,781위안	35배 / 46배 증가

의문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경제의 고도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노동·자본이 풍부하고, 아직 경제발전의 초기단계(1인당 GDP가 3,000불 수준)로서 성장 여지가 크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관리 능력, 계획경제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리스크 요인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내수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생적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다른 국가들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7%를 달성하였고, 2010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10년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일본을 추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관측(2010년 1월)했다. 중국경제의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 고도성장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경제의 고도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노동·자본이 풍부하고, 아직 경제발전의 초기단계(1인당 GDP가 3,000불 수준)로서 성장 여지가 크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관리 능력, 계획경제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리스크 요인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내수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생적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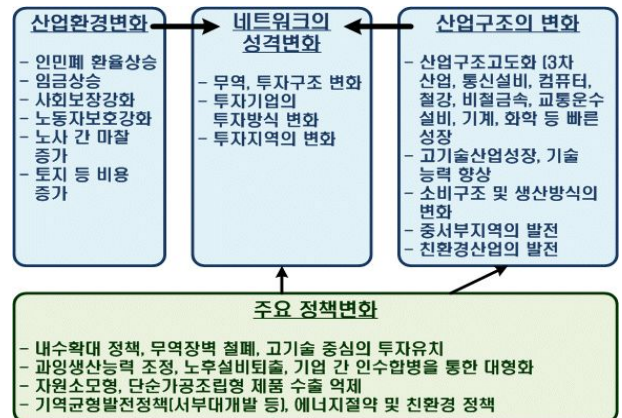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네트워크 역량 및 국가 간 네트워크의 확대

3.2 중국 산업의 네트워크 역량 변화 방향

중국 산업의 네트워크 역량이 변화하면서 국가간 네트워크의 성격도 변화해왔다. 네트워크 역량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네트워크 역량을 확대하여왔다. 이러한 네트워크 역량의 급속한 성장은 투자, 무역 등과 같은 국가간 네트워크의 확대에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여타 국가와의 네트워크 확대는 경제성장 등과 같은 네트워크 역량 확대에도 영향을 미쳐 서로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중국은 향후 지속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무역, 투자 등을 통한 여타 국가와의 네트워크도 확대될 것이다.

11차 5개년 계획부터 중국은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구조변화를 모색하였다[4]. 개혁개방 이후 1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줄고, 3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제조업종에 있어서는 섬유·의류 등에서 통신설비, 컴퓨터, 철강, 비철금속, 교통운수설비, 기계 등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전부터 중국 정부는 구조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가공무역에 주어지던 특혜를 철폐하고, 환율절상을 통해 저부가가치상품의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이러한 수출정책은 다소 주춤하였지만 수출부진에



[그림 5] 중국의 네트워크 역량과 네트워크 성격 변화

따른 내수시장 부양책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과거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구조를 내수위주로 전환하는 정책구조의 대전환을 실시하고 있다[5].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과거에 주어지던 특혜를 대부분 철폐하고, 고기술산업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서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저탄소경제의 실현을 위해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기술산업의 성장, 기술능력 향상, 소비구조 및 생산방식의 변화, 중서부지역의 발전, 친환경산업의 성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6]. 인민폐환율 상승이나 임금상승, 사회보장강화, 노사 간 마찰 증가, 토지 등 비용 증가 등 산업환경변화도 중국 산업구조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는 중국 네트워크 역량의 성격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성격도 변하게 되어있다. 산업구조고도화는 수출 및 수입상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의 성격도 변하게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의 대상산업이나 같은 산업내에서도 제품의 특성 등이 달라질 것이고, 단순 생산위주에서 연구개발, 부품조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성격변화는 산업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환경변화나 정부의 주요 정책변화에 따라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산업환경변화는 중국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기업이 생산 및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정부 정책이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출입의 상품구조나 투자기업의 성격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4. 한중 간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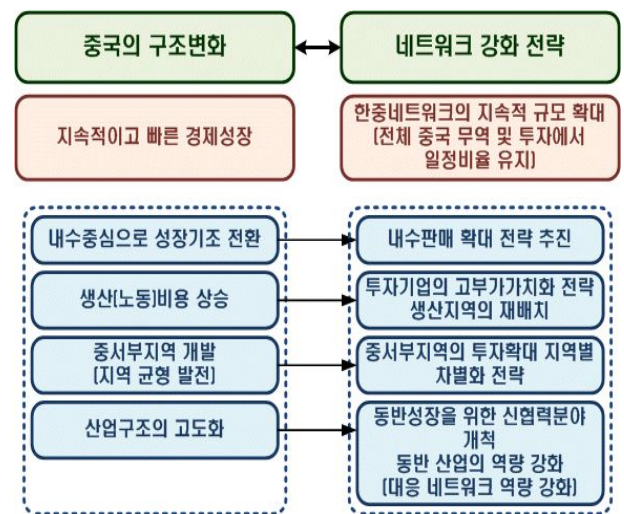
한중간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의 구조변화에 따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과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여 네트워크를 보다 확대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빠른 경제성장은 한중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역네트워크의 변화에서 보듯이 일본 및 미국 등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중국의 빠른 성장에 비해 상호간 네트워크가 빠른 성장을 보이지 못해 전체 중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왔다. 그러나 한국은 그 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중국의 성장속도에 맞추어 교역네트워크도 같이 성장해온 것이다. 현재 중

국의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이상은 고도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 네트워크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중국의 성장에 맞추어 어떻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느냐에 있다.

먼저 중국의 경제성장 기초가 수출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중국 내수판매를 확대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에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에서의 생산비용, 특히 노동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여건의 악화를 의미하면서 일반 노동소비계층의 소비수준 향상을 의미한다. 과거 저임금노동에 의존하는 단순 가공조립의 수출산업에는 한계가 있어 투자기업도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급화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저부가가치 제품은 제3국이나 중국내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중국은 중서부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실지로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이들 지역이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동반성장을 위한 신흥력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는 중국의 네트워크 역량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구조로는 변화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국의 변화에 부응하여 제품의 고급화, 현지화, 다양화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현지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저가제품생산지가 아니라 중국부문의 역할이 보다 강화된 형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그림 6] 중국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강화 전략

우리의 대응 네트워크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기술이나 디자인, 품질, 생산분야의 급격한 혁신을 통해 빠른 변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네트워크의 확대발전을 모색하고, 네트워크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네트워크의 확대를 제약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각종 네트워크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사회주의국가의 잔재 및 개도국의 특성이 남아있는 중국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중간 FTA나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이러한 네트워크 확대의 제도적 제약요인들을 제거해야할 것이다[7]. 또한 실질적인 정보 및 지식공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촉범위를 보다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접촉의 친밀도도 강화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명시적 지식뿐만 아니라 묵시적·암묵적 지식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채널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교류도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최근 업종 간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업종 간 교류뿐만 아니라 이업종 간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

중국과의 네트워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이를 분석·연구하는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며, 중국의 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각종 중국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이 선진국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자체의 이미지보다 국가 이미지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제도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원천의 중국진출이나 각종 SOC 수주문제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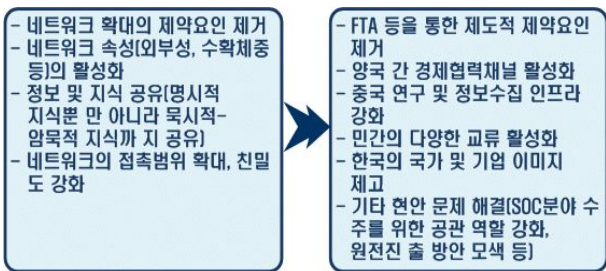
5. 결론

국가 간의 경제관계는 상호분업이라는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국가 간 경제 교류가 확대될수록 네트워크의 범위는 확대된다. 한 국가의 기본 역량 규모가 바뀌게 되면 양국 간의 네트워크의 범위 및 내용도 바뀌게 된다.

과거에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임금 산업 구조를 형성하여 ‘세계의 공장’으로서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였다. 한편 한국의 경우 중·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을 따랐으며, 양국 간에는 ‘한국의 기술’에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하는 생산기지로서 중국을 활용하는 전략이 채택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경제 발전에 따라 임금 및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내수시장도 커지게 되었다. 또한 중국내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또한 기계, 전자 등 고기술 중심의 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구조 변화 및 산업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네트워크가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기조를 바꿈에 따라 향후 한국 경제는 중국의 내수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생산(노동) 비용의 상승에 따라 이제부터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실시해야 하며, 기존에 저가 비용 생산 공장 및 산업을 구조조정을 하거나 지역별 공장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중·서부 지역 개발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양국간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해야 하며, 중국 산업의 발전에 따른 대응 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역량 변화에 따라 중국과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양국간의 제도적 제약 요인을 제거하여 민간 분야의 교류를 더욱 촉진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림 7] 네트워크의 효율성 강화 전략

6. 참 고 문 헌

- [1] Clark, Howard, "Formal Knowledge Networks: A Study of Canadian Experience," Winnipeg: IISD, 1998.
- [2] Heather Creech and Teri Willard, "Knowledge Management: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for development organizations," Key terms and definitions, IISD, 2001.
- [3] 지식경제부 중리협력과, "한중경제협력 현황 및 과제", 2009.12.
- [4] 中國科學院, 高技術發展報告, 科學出版社, 2010. 3
- [5] 조철, 「네트워크경제의 진전과 부품조달체제의 변화」, 산업연구원, 2002.12.
- [6] 2009 中國工業發展報告
- [7] 지식경제부 중리협력과, "한중경제협력 현황 및 과제", 2009.12.

저 자 소 개

김 경 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디지털경영학과 박사를 취득. 현재 지식경제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국가간 네트워크 관련 정책

주소: 중국 북경시 조양구 양마교 제삼사관구 동방동로 20호

서 중 현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LG CNS 컨설팅 부문에서 선임컨설턴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R&D 성과평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품질경영 및 신뢰성 분석 등이며, 최근에는 1인 창조기업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G302호